

공개 소프트웨어 OMEKA를 이용한 기록 웹 전시 방안 연구

최 윤 진* · 최 동 운** · 김 형 희*** · 임 진 희****

1. 머리말
2. 국내 기록 웹 전시의 현황
 - 1) 웹 전시 사례
 - 2) 웹 전시 연구 현황
3. 기록 웹 전시도구 및 전시 사례
 - 1) 기록 웹 전시도구로서 OMEKA의 특징
 - 2) OMEKA를 이용한 기록 웹 전시 사례
4. OMEKA를 이용한 기록 웹 전시 절차와 방법
 - 1) 사전 검토
 - 2) 웹 전시 기획
 - 3) 전시 기록 분류 및 구성
 - 4) 기록 등록 관리
 - 5) 전시 연출 관리
5. 맺음말

* 최윤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정보·기록학과 박사과정, 한국은행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제1저자).

** 최동운,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정보·기록학과 박사과정, 서울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제2저자).

*** 김형희,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정보·기록학과 박사수료, 의정부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제3저자).

**** 임진희, 명지대학교 기록과학정보전문대학원 교수(교신저자).

▪투고일 : 2014년 9월 25일 ▪최초심사일 : 2014년 10월 5일 ▪게재확정일 : 2014년 10월 13일

[국문초록]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IT기술과 인터넷 보급률 덕분에 웹 전시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공공기관의 웹 전시는 단순히 오프라인 전시프로그램을 소개하거나 웹 전시 자체로는 활성화 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의 웹 전시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웹 전시에 대한 인식 부족, 시스템 구축비용 문제, 전문 인력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스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기관에서는 공개 소프트웨어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본고는 기록을 전시하기 위한 공개 소프트웨어인 OMEKA의 주요 기능을 소개하고 해외 사례 및 설치에서 전시에 이르는 활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OMEKA가 가진 특징을 고려할 때 전시효과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보장되고 갖추어야 할 점을 검토하였다.

OMEKA는 전문적 기술 없이도 멀티미디어의 웹 전시가 가능해 시청각 기록물의 활용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 따라서 OMEKA는 설치가 쉽고 운영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 발달 추세에 맞는 기술적 유연성을 갖춘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기관의 목적을 구현하는데 적합하다. OMEKA는 디지털 컬렉션과 웹 전시 등 콘텐츠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전통적인 아카이브 활용 프로그램과 달리 이용자에게 친화적이다. 특히 전시 기능이 탁월하여 이미 여러 도서관과 소규모 박물관, 학교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OMEKA를 활용, 공공기관의 전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면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관에서 보유한 기록에 대해

주제와 내용에 맞는 기획으로 전시 컬렉션을 제공할 수 있고 기관과 이용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록물 활용에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OMEKA는 웹 전시가 필요하지만 전시를 위한 환경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기관에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

주제어 : 공개 소프트웨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웹 전시, 온라인 전시, 디지털 전시

1. 머리말

정보화의 급격한 진전으로 기록정보의 생산자와 제공자의 경계가 무의미하게 되었다. IT 인프라의 확산은 기록정보의 활용 범위를 기관에서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로까지 확대시켰다. 더욱이 기록정보를 쉽게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은 자연스럽게 기록생산량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부추겼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기록관리의 영역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 되었다.¹⁾ 아카이브즈의 개념과 범위는 더 이상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기록관리기관에서만 머물지 않고 이제는 그 주체나 대상이 다원화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역할 또한 단순 기록정보를 보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보유하고 있는 기록정보를 적극

1) 글로벌 IT 시장 정보 제공기관인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에 따르면 2013년 현재부터 2020년 사이 생산 데이터의 총량은 매 2년마다 두배씩 증가하여 40조 기가바이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셜미디어의 상용화는 이러한 다양한 정보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 과잉생산에서 기록정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Vicki Wiler, *Conquering the Chaos of "Too Much Information"*, Information Management An ARMA International Publication, MAY/JUNE 2013, p.4.)

적으로 활용하여 이용자와 공유하는 방식을 요구받고 있다. 이제 개인이나 기관을 불문하고 누구나 특정 주제나 기억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기회는 급격히 증가했고, 이를 지속적으로 축적 및 보유해야 하는 필요성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나아가 이를 효과적으로 가공하고 목적에 맞게 연출하는 수요도 증가되었다. 즉 기록정보 관리의 발전방향의 중심은 다양한 계층의 아카이브즈 운영자(기록정보 생산·보유 주체)와 이용자의 욕구에 부합하여 기록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있다.²⁾

이러한 차원에서 기록의 정보제공 능력과 그 가치를 극대화하는 수단으로써 전시는 매우 중요하다. 기록 전시는 지적 윤희를 만끽하고 교육적 효과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홍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단계 중 하나이다. 생산 및 보유 기록물의 내용과 의미와 전달, 그리고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시는 비단 기록관이나 공공기관의 단위만이 아니라 기록생산의 주체 모두의 욕구일 것이다. 더욱이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화(Digitizing), 멀티미디어(Multimedia), 데이터베이스(Database), 네트워크(Network) 등의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변화한 기록 관리 방식은 전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과거 오프라인 위주로 전시가 발달하였지만 현재는 디지털 기술의 적용된 온라인 방식으로 변화됐고, 소규모 기관과 개인에게도 디지털 전시는 과거와 달리 어렵지 않게 되었다.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한 온라인 전시는 전자적으로 생산된 전자기록뿐만 아니라 종이, 사진, 박물관 등 비전자적으로 생산된 이후 스캔이나 디지털촬영 등의 단계를 거쳐 전자화된 형태로 변환된 기록들을 문화콘텐츠로 이용하는 효율적인 방안이다. 무엇보다 멀티미

2) 기술의 진보와 정보가치의 급격한 변화 속에 아카이브 이용자의 분야와 요구 또한 연구자 중심의 전통적 이용자 집단에서 이제는 일반 대중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서 이용자 중심성과 개방성을 지향하는 소통방식과 인식의 전환하는 아카이브 2.0의 개념이 요구되고 있다. (김유승, 「아카이브 2.0 구축을 위한 이론적 고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 한국기록관리학회, 2010, 36쪽.)

디어, 시청각 등 다양한 매체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상관없이 촬영하여 이용자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고 2차적 이용을 위한 발전 단계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다양한 공개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보급은 공간, 시간, 예산 등의 제약을 극복하고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가 기록전시를 기획, 연출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개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무료배포를 전제함으로써 다양한 사용을 통해 효용과 가치를 높일 수 있다. 현재 기록의 수집, 아카이빙 구축, 전시를 위해 개발된 공개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기관에서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활용한 기록관리 단계들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다. 특히 기록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민간 또는 소규모 기관에서는 활용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³⁾

본고는 공개 소프트웨어인 ICA AtoM을 사례로 한 기록시스템 구축 가능성에 대한 연구⁴⁾에 이어 기록을 전시하는데 이용하기 위한 공개 소프트웨어인 OMEKA를 소개하고 설치에서 전시에 이르는 시스템 활용 등을 검토한다. 2장에서는 국내 웹 전시 사례 및 기록 전시의 현황을 3장에서는 주요 기능과 특징 및 이를 활용한 웹 전시의 실제 사례를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활용을 위해 고려해야 할 내용 등을 기록의 전시라는 프로세스를 고려하여 소개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OMEKA가 가진 특징을 고려할 때 전시효과나 이용과 효용을 높이기 위해 보장되고 갖추어야 할 점을 검토함으로써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웹 전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이보람, 황진현, 박민영, 김형희, 최동운, 최윤진, 임진희, 「공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기록시스템 구축가능성 연구」, 『기록학연구』 39, 한국기록학회, 2014, 198-2014쪽.

4) 위의 글.

2. 국내 기록 웹 전시의 현황

1) 웹 전시 사례

국내의 경우 급격한 정보화 환경의 진전으로 다양한 수준의 기관·단체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록정보를 전시 서비스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온라인 전시, 디지털 전시, 웹 전시, 가상 전시 등 다양한 명칭으로 정의되고 있고, 심지어 일상적으로 접하는 각종 웹 사이트 역시 전시효과를 가지고 있어 그 영역이 모호해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전시’가 대상 기록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문화 커뮤니케이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시는 일반적인 기록정보 제공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⁵⁾ 즉 기록정보 제공을 위한 시·공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전시주체의 의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차원에서 박물관, 미술관 등 대중 접촉이 빈번했던 문화기관들이 실제 환경에서 연출했던 전시를 온라인 환경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기록을 관리하고 수집해왔던 국내 기록관리기관 역시 웹 전시를 통해 최근 대중과의 접촉과 공유 등 온라인 환경에서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의 경우 초창기에는 기록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지식정보 자원화 측면에서 큰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했으나, 지속적인 기록물 수집 및 관리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서 진일보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5년 이후부터 국가기록원은 기

5) 김희경, 「웹 기반 가상 전시 구축 모델 제안 - 루이스&클락(Lewis&Clark) 가상 전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 한국콘텐츠학회, 2008 ; 최석현, 박현숙, 김명훈, 전태일, 「아카이브의 디지털 전시 활용효과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1), 한국기록관리학회, 2013 참고.

관 포털에서 다양한 유형 및 주제형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다양한 컬렉션과 주제 등 대중의 관심을 반영한 웹 전시를 서비스하고 있다.⁶⁾

〈그림 1〉 국가기록원 포털 기록정보 콘텐츠 화면⁷⁾



국가기록원 제공 콘텐츠는 주제, 시대·생활, 교육, 전문가 대상 콘텐츠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와 별도로 7가지의 웹 전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각 세부 유형은 다음 표와 같다.⁸⁾

- 6) 국가기록원, 「제6장 기록물 편찬·전시·문화」, 『국가기록원 40년사』, 2009, 226-233쪽.
- 7) 국가기록원 포털 기록정보 콘텐츠 웹 주소 : <http://www.archives.go.kr/next/theme/themeView01.do>
- 8) <http://www.archives.go.kr/next/theme/contentsList.do> (2014년 9월 30일 현재)

〈표 1〉 국가기록원 기록정보 콘텐츠 목록

유형	제공 콘텐츠
주제콘텐츠 (22)	경부고속도로 건설 /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 / 국제 스포츠 대회 / 급기와 자율 / 기록으로 보는 4.19혁명 / 기록으로 보는 남북회담 / 다시 보는 2002 FIFA 월드컵 / 사건기록 한국현대사 1·2·3·4(김창룡저격사건·진보당사건·3.15 부정선거·필화사건) / 산림녹화/산업단지 개발 / 새마을운동 / 식량증산 / 원자력 진흥정책/인구정책 / 재외 한인의 역사 / 한국과 유엔 / 5.18 민주화운동/6.25 전쟁 / OECD 가입
시대·생활 콘텐츠(8)	기념일과 기록 /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 기록으로 보는 생활사 / 사진 대한민국 / 연표와 기록 /오늘의 기록 / 이달의 기록 / 함께 만드는 기록세상
교육 콘텐츠 (19)	국경일과 법정기념일 / 기록으로 보는 대통령선거의 역사 / 기록으로 살펴보는 / 의식주 문화 / 나는 대통령 /노래로 배우는 한국현대사 / 서양 고지도를 통해 본 한국 / 대한뉴스와 함께하는 우리 경제의 발자취 / 독도 / 아리랑 / 어린이 조선왕조실록 / 엄마랑 아빠랑 어린이날 기록여행 / 역사속 엮근리 이야기 / 웹툰으로 보는 기록사랑 이야기 /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보는 어제와 오늘 / 카툰 공문서 / 한글이 걸어온 길 / 헌법이야기 / 훈장전시관 / 5대 국가상징
전문 콘텐츠 (11)	관보 / 국무회의기록 / 내 고장 역사 찾기 / 내 고향 역사 알기 /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 일제강제동원자명부 / 조선총독부기록물 / 일제시기 건축도면 아카이브 / 정책정보 / 지적아카이브 / 참여정부 정책간행물

〈표 2〉 국가기록원 웹 전시 콘텐츠 목록

전시명	전시 내용
건국60년 특별전	국가기록원은 2008년 “건국 60년 기념 국가기록 특별전”을 개최하고, 전시내용을 토대로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
구호로 보는 시대풍경전	수십년 간 일상생활 속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회의 성격과 시대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구호가 담긴 기록물 전시
국가지정기록물	개인·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영구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국가지정기록물 중 일부를 온라인으로 전시
국제기록문화 전시회	2010년 6월 “2010 국제기록문화전시회”에서 전시된 자료를 선별하여 온라인 전시관에 구현
기록이 있는 영상카페	대한뉴스, 국립영화제작소 등 과거 영상제작기관에서 제작하여 방영한 영상기록 중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선별하여 제공
대한민국 희망기록	2009년 경제위기에 국가적 자금심 고취를 위해 기획된 “대한민국 희망기록찾기” 온라인 공모전에서 수상한 콘텐츠를 전시
UN의 눈으로 본 사진전	유엔에서 수집한 사진기록물을 중심으로 한국의 고난기와 성장기 동안 유엔과 관련된 기록들을 전시

아울러 국내 대표적인 주제형 기록수집관리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도 기관 성격에 부합하는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들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온라인 기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사업회 내 사료관이 운영하는 오픈 아카이브즈에서는 현대사 주요 민주화운동들을 주제별로 콘텐츠화하였다. 특히 Open API를 개발하여 관련 기관이나 조직 및 단체에서 아카이브즈 웹 사이트를 구축할 때 사업회 오픈 아카이브즈의 AP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9)

〈그림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 아카이브즈 화면 일부



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 아카이브즈 : <http://archives.kdemo.or.kr> (2014.9월 30일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오픈 아카이브즈에서는 총 6개의 카테고리 로 서비스하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 오픈아카이브즈 서비스 내용

카테고리명	서비스 내용
자료분류 기술	민주화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사건들을 선정하고 사업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 중 해당사료를 분류하여 130여 개의 항목 가운데 법률로 지정된 민주화운동 7개를 범주화하여 정리
사진 아카이브즈	민주화운동 관련 60,000컷 사진기록을 온라인으로 제공
자료로 배우는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를 활용하여 제작한 교육용 콘텐츠로 각급 학교의 교육 교재로 활용
구술 아카이브즈	2010년 4월 혁명 50주년을 맞아 사업회에서 4월 혁명 발생지역과 주 제별로 구술채록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을 통해 수집된 105명, 182시간 분량의 자료 가운데 선별하여 구술자 개인의 해제, 상세목록, 녹취 문,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
자료콘텐츠	사업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을 활용하여 교육 및 전시 등의 목적으로 제작된 웹콘텐츠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 및 관련 단체, 또는 시의적 주제를 선정하여 제작, 서비스
아카이브즈 소개	자료관 및 소장자료, 직원 및 오픈 아카이브즈 소개 및 정책·전략업무 등을 설명하고 참여 기증 견학 등 참여방법을 제공

특히 사업회에서는 2013년 6월 6.10민주항쟁 26주년 기념전시회의 기록콘텐츠를 바탕으로 '6월의 연가'라는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전시대상이 되는 6월 민주항쟁 사진기록들을 직관적으로 연출하고 웹에서 이용자가 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interactive)한 행위들을 적절하게 유도하여 사진기록이 가지고 있는 현장감을 전달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도를 하였다. 해당 웹페이지에서는 6월 민주항쟁의 경과 과정에 대한 스토리텔링('6월의 거리에서'), 항쟁 당시를 증명하는 사진 기록 전시('사진아카이브'), 2013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실제 연출했던 전시공간을 촬영하여 VR(가상전시) 기법을 적용한 부분 등으로 나뉘져 있다.

〈표 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디지털콘텐츠 ‘6월의 연가’ 화면

<p>메인 홈페이지</p>	<p>6월의 거리에서</p>
<p>사진아카이브</p>	<p>디지털전시</p>

이러한 각급 기관들에서 제작하고 있는 웹 전시는 다양한 주제와 시도들이 접목되어 이용자의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전시들은 전시기획단계에서 서비스 및 피드백 등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는데 적지 않은 예산과 비용이 요구된다. 특히 기록정보의 수집이 지속될수록 데이터베이스가 풍부해지기 마련인데, 이처럼 축적되는 기록정보들을 적절하게 보존하고 이용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위 사례의 전시연출 기법이나 고도의 웹디자인 적용은 기록관리를 관리할 프로그램조차 확보하기 힘든 일반 소규모 기관이나 단체에서

기대하기 힘들다. 민간아카이브에서는 서버 확보는 물론 관련 프로그램 구입 비용을 비롯하여 기록을 관리하고 전시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2) 웹 전시 연구 현황

기록 전시는 공공기관과 일반 대중이 만나는 부분(interface)으로 전시 설정은 기관의 대외 이미지로 이어진다. 그리고 전시는 이용자가 기록을 보고 기관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 즉, 기관의 존재와 사회적 역할을 대중에게 직접 알리는 서비스로 기관의 이미지 설정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나 공공기관 공간의 지리적 특성과 성격상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오프라인 전시를 이용한 대중과의 교류에서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¹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웹 전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기록정보 활용에 대한 선행연구 중에서 전시에 대한 관심은 다른 영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대부분의 연구는 전시를 공공기관의 홍보 수단으로 인식하고 홍보와 관련된 연구의 일부로 간주하거나 효율적인 전시 프로그램을 위한 콘텐츠 구축 및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이미 수행된 연구를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크게 확장 서비스(outreach)로서 전시 연구, 온라인 전시에 관한 연구, 전시 방법론 및 정책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웹 전시를 연구한 논문들은 전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기록을 서비스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공간의 제약이 적은 웹 전시를 언급하였다. 공통적으로 공공기관의 전시 활동이 대중에게 기록 이

10) 김형희, 『기록물의 특성을 반영한 전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2010, 석사학위논문, 1쪽.

용을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인 동시에 소장기록 및 기관을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홍보수단으로 보고 있다.¹¹⁾

전시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대표적 기록관리기관인 대통령기록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콘텐츠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제공하는 콘텐츠의 이용 목적을 고려한 하위메뉴 구성,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콘텐츠 구성 등을 언급하였다. 더불어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과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통한 전시 구성 방법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¹²⁾

우리나라의 경우 웹 전시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IT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웹 전시의 수준은 이미 진행된 오프라인 전시 소개 정도로 단순하거나 일반 웹사이트와 구분 없이 전시라는 이름 아래 일방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에 국내외 대학기록관 전시프로그램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접근성, 주제, 전시대상, 전시매체, 정보선택 방법, 커뮤니케이션 수단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기하였다.¹³⁾

기록 활용 서비스에 있어 전시를 체계적으로 활성화 하는 방법에 대한 정책관련 연구들은 공공기관의 홍보 방법으로 전시를 강조하고 전시 정책 수립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조건 및 전시 사례를 설명했다. 해외 사례를 통해 다양한 전시 방법을 살펴보고 전시를 위한 원칙과 방법론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¹⁴⁾ 위의 연구 외

11) 이희숙, 『인터넷을 통한 기록관의 서비스 활동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4.

12) 양춘만, 『대통령기록관의 온라인 기록정보콘텐츠 서비스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13) 최현숙, 『대학기록관의 온라인 전시프로그램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3.

14) 이혜원, 『기록관 전시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6; 정은진, 『영구기록물관리기

에 전시 효과를 증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를 살펴보면 전시를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집단 정체성 형성을 위한 공공기관의 업무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¹⁵⁾

이처럼 국내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웹 전시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나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이 적었다. 활용 서비스의 일부로 전시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나 이를 구현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환경에 대한 연구는 미비했다. 이미 수행된 연구에서는 전시를 통한 기관의 홍보 활동과 전시의 기본적인 사항,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었으나 전시 대상을 실제 웹 상에서 전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하면서도, 효과적인 전시를 이뤄낼 수 있는 실질적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개와 보급이 필요하다.

그동안은 웹 전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이를 위해 적용가능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는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OMEKA는 기관의 특성에 맞게 활용 할 수 있는 다양한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각 기관의 웹 전시에 대한 계획 및 구성에 대한 비용 절감을 이끌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설치의 용이성 및 손쉬운 기술 환경은 시스템 전문가 채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부담감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다. OMEKA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전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

관 공공프로그램의 역할과 운영방안』, 목포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 협동과정, 2007, 석사학위논문; 이은서, 『아카이브 전시 방법론 연구: 해외 아카이브 사례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2013, 석사학위논문; 이정수, 『아카이브 전시서비스의 실태와 활성화 방향에 관한 연구: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 2014, 석사학위논문.

15) 이선희, 『기록의 전시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2009, 석사학위논문.

식을 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OMEKA는 웹 전시가 필요하지만 전시를 위한 환경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기관에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

3. 기록 웹 전시도구 및 전시 사례

3장에서는 OMEKA의 주요 기능과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설치방법을 소개하고 이미 기록 웹 전시도구로 OMEKA를 이용한 전시 사례를 살펴보려고 한다.

1) 기록 웹 전시도구로서 OMEKA의 특징

실제 OMEKA를 설치하고 구동하기 위해서는 서버용 소프트웨어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Web Application Server) Apache,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atabase Management System)을 위한 MySQL 5.0, 웹 프로그래밍 언어(Web Programming Language)를 위한 PHP5.3 혹은 Fileinfo가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설치의 최소 환경은 Apache v2.0 또는 2.2, MySQL v5.0, 5.1 또는 5.5, PHP v5.3 버전 이상이다. OMEKA는 기본적으로 리눅스(Linux) 플랫폼에서 설치가 가능하며, 이는 이전부터 이용되었던 유사 소프트웨어인 Dspace와 Fedora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솔루션이다.

OMEKA를 설치하고 실제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들은 OMEKA 홈페이지의 이용자 포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오픈소스 아카이브 시스템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활동 중인 '오픈소스 아카이브 소프트웨어 포럼(OSASF: Open Source Archive Software Forum)'을 통해 가이드라인과 이용 관련 정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OSASF'에서는 OMEKA 설치 가이드뿐만 아니라 추가 개발된 기능을 소개하고 국내 아카이브즈의 이용 현황, 기술적 오류의 해결방법, 기록의 import 방법 등 실제 OMEKA 사용에 필요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오픈소스의 취지에 따라 사용자들의 질의와 의견제시를 통해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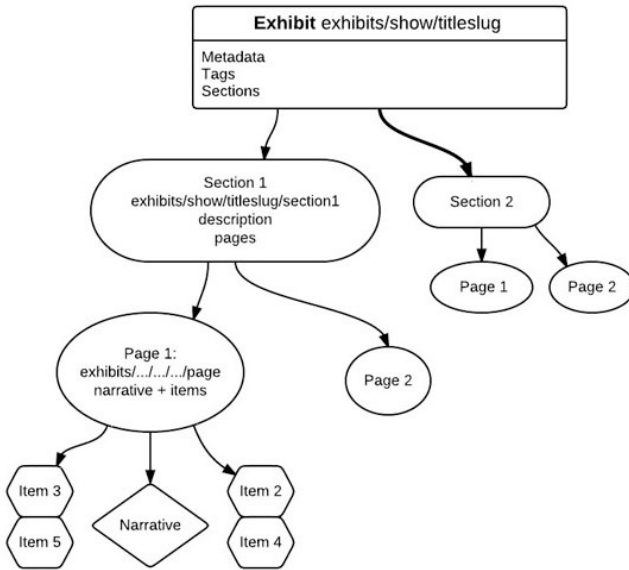
그리고 OMEKA는 별도의 설치 없이도 웹 퍼블리싱 플랫폼인 OMEKA.net에 가입하여 일반 노트북이나 PC등 다양한 컴퓨터에서 설치해 전시에 이용할 수 있다.¹⁷⁾ OMEKA.net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통해 계정을 개설하면 용량, site-plugin, 테마 등 콘텐츠 제공수준에 따라 유료화하여 등급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무료 등급으로도 500MB(1 site, 10 plugins, 4 themes)를 제공한다.

가입 후에는 Dashboard에서 서비스와 관리가 가능하다. Manage Site에서는 OMEKA를 통해 보유기록을 관리하고 전시 서비스 연출을 기획할 수 있는 메뉴들이 구성되어 있다. Manage Site 내 Dashboard에서는 아이템 레벨(Items), 컬렉션 레벨(Collections), 사용자(Users), 환경설정(Settings), 전시(Exhibits)를 통제할 수 있다. 아울러 각 기록들은 연계하기 위한 Tags 기능을 갖추고 CSV Import 기능으로 다량의 기록목록을 일괄 탑재할 수 있다. 전시화면과의 연계 및 추가, Exhibit Builder 기능을 이용하여 전시를 개설 할 때는 전시의 기획과 주제(narrative)에 따라 섹션 및 페이지로 구성하고 아이템을 섹션별로 구성하여 실제 웹 전시로 연출될 수 있게 한다. OMEKA는 단일 아이템이 이를 기술한 메타데이터와 검색 등에 필요한 주제어를 표현한 태그, 섹션으로 구성된다. '아이템-섹션-페이지-전시'의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다.

16) <http://www.osasf.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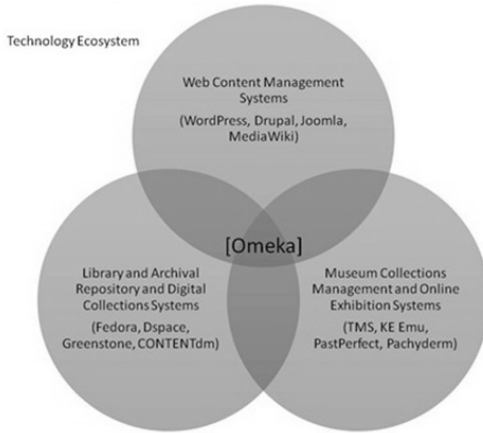
17) <http://www.OMEKA.net>

〈그림 3〉 ‘아이템 - 페이지 - 섹션 - 전시’의 구조도



이처럼 OMEKA는 특별히 전문적 기술이나 많은 비용 등의 인프라를 갖추지 않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기록 전시기능으로 특화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웹디자인 등 전문 기술력 없이 멀티미디어 전시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이 같은 특징으로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아카이브즈) 등 학문적인 컬렉션과 전시에 널리 쓰인다. 이뿐만 아니라 웹 콘텐츠 관리, 컬렉션 관리, 아카이브 디지털 컬렉션 시스템을 아우르는 기술로 웹 콘텐츠 관리 시스템 프로그램(WordPress, Drupal, Joomla Media Wiki)과 도서관이나 기록관 등 디지털 컬렉션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Fedora, Dspace, Greenstone, CONTENTdm), 박물관 컬렉션 관리 및 웹 전시 시스템을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TMS, KE Emu, PastPerfect, Pachyderm)으로 모두 활용될 수 있다. 다음 〈그림 4〉는 OMEKA의 주요 이용자별 기술환경을 주요 이용분야에 맞게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4〉 OMEKA의 주요 이용자별 기술환경¹⁸⁾



이같이 이용자 친화적인 기술환경은 OMEKA의 개발에 IT 비전문가가 동참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프로그래밍보다는 콘텐츠와 해설에 더 초점을 맞춘 결과이다. OMEKA는 웹 2.0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기본 수준 이상의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 단순하면서도 유연한 태블릿 시스템으로 개발자와 이용자 간 구축된 커뮤니티 관계로 지속적인 내구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각 기관에서는 보다 쉽게 연구와 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OMEKA의 주요 이용자 그룹을 다음의 세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 문화콘텐츠 생산자 그룹(Cultural Contents Creators : 학자, 역사기관, 커뮤니티 그룹, 교사, 학생 등), 도서관과 기록관에서 근무하는 사서와 아키비스트 그룹, 큐레이터, 웹디자이너, 교육자, 투자자, 박물관 전문가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문화 콘텐츠 생산자로서 연구자 집단들은 논문이나 학술보고서 생산 등을 목적으로 해당 연구자료의 원문 컬렉션을 공유하기 위해 OMEKA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그룹이 OMEKA를 실제로 활용한 사례는

18) [http://OMEKA.org/about/\(2014.5.3\)](http://OMEKA.org/about/(2014.5.3))

Digital Worcester, Euclid Corridor, Experiencing Medieval Places, The World at the Fair, Daisie M. Helyar, 1906-1910 Scrapbook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사서와 아키비스트 그룹은 도서 관리 프로그램인 웹 카탈로그를 보완하기 위한 출간 도구와 소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웹으로 전시에 OMEKA를 활용할 수 있다. 아키비스트 그룹은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컬렉션을 외부 이용자와 공유와 기관에서 생산 및 보유하고 있는 종이 문서뿐만 아니라 사진, 행정박물, 구술사를 전시하고 소장 기록을 이용해 제작한 콘텐츠로 웹 전시를 위해 OMEKA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사서와 아키비스트들이 선호할만한 OMEKA의 특징과 플러그인으로는 더블린 코어 메타데이터 표준, W3C와 508¹⁹⁾의 준수, 이용자의 주문에 따라 만들 수 있는 아이템 및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도구로는 CSV Import, OAI-PMH Harvest, OAI-PMH Repository 등이 있다. 사서 그룹이 OMEKA를 활용한 사례로는 Memorial Stadium 1924-1992, Photographs by Homer L. Shantz, Eminent Domain, Upper Ringwood Library Collection 등이 있다.

박물관 전문가 그룹은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컬렉션을 온·오프라인 이용자와 공유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박물관에 전시하지 못한 객체의(objects) 웹 전시를 위해 OMEKA를 사용하며 방문자들을 초대하고 박물관 뉴스나 행사에 대해 홍보하는 데도 쓰인다. 박물관에서 OMEKA를 활용한 사례는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Lincoln at 200, Inventing Europe: Technology and the Making of Europe, 1850 to the Present, Object of History, Catawba River Docs, Gulag: Many Days, Many Lives를 꼽을 수 있다. 박물관에서 생산되는 문화콘텐츠를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룹으로써 교육자(Educators)가 있다. 이 집단은 학생들을 위한 관찰자료 및 참여 학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

19) 미국에서 지정하는 모든 표준에 대해 WAI(Web Accessibility initiative)라는 하부 조직에서 웹접근성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있으며, 정부 조달에 대한 접근성을 준수를 재할법 508조를 두고 있다. 국내도 장애인차별 금지법을 지정하여 장애인이 웹을 이용할 때 인식성, 운용성, 이해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있다.

해서 OMEKA를 활용할 수 있다. 교육자 그룹이 OMEKA를 활용한 사례는 Laurel Grove School Teachers Workshop, Making the History of 1989, Children and Youth in History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개인적 연구 혹은 국제적으로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는 컬렉션을 공유하기 위해서 혹은 특정 집단이나 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컬렉션 전시를 개최하고 전문성을 보여주는 글을 게재하기 위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2) OMEKA를 이용한 기록 웹 전시 사례

OMEKA는 쉬운 설치와 전시에 특화된 강점으로 다양한 구미의 문화기관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뉴욕 공립 도서관(New York Public Library)과 뉴베리 도서관(Newberry Library) 등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소규모 박물관이나 역사 단체 등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미주리 저널리즘학교(The Missouri School of Journalism)는 OMEKA를 활용하여 국제사진대회 38,000여 장의 사진 아카이브를 제공하고 있다. OMEKA의 다양한 웹 전시 사례는 OMEKA.net의 showcase에서 더 많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OMEKA.net의 showcase 중 OMEKA를 이용하여 기록정보를 콘텐츠로 제작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1) 허리케인 디지털 기억 은행(Hurricane Digital Memory Bank)

‘허리케인 디지털 기억 은행(Hurricane Digital Memory Bank)’은 2005년 8월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리타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록과 관련된 프로젝트이다.²⁰⁾ 로이 로젠버그 센터와 뉴올리언즈 대학이

20)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2005년 8월 23일 미국 플로리다주 동쪽 약 280km에서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생하여 8월 30일 소멸하면서 미국 남동부를 강타하였다. 80% 이상이 해수면보다 지대가 낮은 뉴올리언스에서 피해가 가장 컸다. 사망·실종 등 인명피해는 2,541명이다.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최대풍속은 75m/s, 직경은 700km이다. 허리케인 리타는 같은 해 9월 17일 미국 루이지애나, 텍사스, 플로리다 남부, 아칸소를 강타 120명이 사망하였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45475&cid=40942&categoryId=31787>(2014.5.3)

주도한 프로젝트로 현재까지 25,000건이 넘는 아이템을 수집하고 있는 대규모 무료 공공 아카이브이다. 이 프로젝트는 전자적 미디어를 이용하여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리타 관련 디지털 기록을 수집, 보존 한다. 재난 이미지, 블로그 포스팅, 팟캐스트(Podcast) 등을 통해 입수된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역사가와 아키비스트들이 시도한 새로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개설된 사이트를 통해 당시 자연재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다. 더불어 이 프로젝트의 참여자가 허용하는 내에서 긍정적인 유산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록생산자가 직접 등록, 생산해서 만들어내는 내용은 사이트에서 수집, 보존하여 역사적 기록으로 다음 세대, 즉 다수의 미래 청중의 접근과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허리케인을 겪은 사람들의 기억을 수집, 보존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특정 주제로 분류되어 전시하기 보다는 item, collections, add to memory bank로 구성되어 있다. Items은 OMEKA의 Item 유형관리 기능을 활용하여 image, story, oral histories, video, mag, tag로 분류되어 있고 각 이미지에 마우스를 클릭하면 세부 기술의 일부가 나오는 방식이다. 해당 아이템을 클릭하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는데 자료 제공자의 단순 서술, 키워드, 참고사항, 지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사이트 이름처럼 지역 사회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를 해당 사이트에 저축하듯이 넣어 두는 방식이다. 해당 이미지들의 수집은 등록과 기술을 최소화하여 기부자가 자료제공을 용이하게 절차를 최소화했다. 해당 이미지의 기술정보는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간략함이 요구되고 가장 객관적인 정보는 지도 이미지를 통해 해당 이미지의 출처로 나타난다.

Collections을 살펴보면 당시 재난구호에 참여했던 기관들이 생산, 수집한 자료와 그 외 기관들이 수집한 자료들로 루이지애나 주립 박물관, 스미소니언 박물관, 연안경비대(united states coast guard) 등에서 수집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기념행사 혹은 프로젝트를 통해 해당 기관에서 생산 수집된 기록물을 연계해서 보여준다. 컬렉션과 아이템 기능은 연동되어 있는데 이는 OMEKA Manage plug-in의 기능을 활용하여 아이템과 컬렉션을 연

계 기능을 활용한 것이다. 또한 해당 관리자는 아이템을 등록할 때 메타데이터와 태그(tag)기능을 이용하여 컬렉션과 아이템을 연계할 수 있다.

자료 기증자의 자료제공에 대한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는 add to memory에서도 다시 확인 할 수 있다. 해당 자료의 유형을 선택하면 자료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정보 내역이 뜨는데 정보 제공자의 개인 정보를 제외한 관련 정보는 기증 및 제공자의 기술 사항과 해당 자료에 대한 위치 정보만이 기재 사항으로 되어 있다. 저작권에 대해서는 게시자에게 권한이 부여되며 일체 관여하지 않고 개인 소장 자료에 대한 웹 출판과 참고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사이트의 목적은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리타를 겪은 사람들의 사진, 비디오, 구술 등의 기록 수집을 통해서 해당 기억을 보존하는 것이다. 다양한 디지털 매체로 생산, 소비하는 이미지를 개인의 기억에 머물도록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장소로 모이도록 한다. 이를 통해 개인적 경험을 담고 있는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리타에 대한 콘텐츠와 콘텍스트로 재탄생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디지털 매체에 보존하고 있던 기억을 지역의 집단 기억으로 재생산하여 역사로 만드는 것에 동참하게 한다.

〈그림 5〉 Hurricane Digital Memory Bank 메인화면



〈그림 6〉 Memorial Stadium의 메인화면



(2) 메모리얼 스타디움(Memorial Stadium)

이 프로젝트는 2009년 미네소타 대학 도서관 주도로 OMEKA를 이용해 대학 기록관과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로 전시를 구성했다. 1924년부터 1992년까지 미네소타 대학 경기장의 사진, 게임, 프로그램, 서신, 보고서, 인쇄물 등을 이용한 디지털 아카이브 전시를 통해 경기장을 기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OMEKA의 전시(exhibits) 기능을 기본으로 다양한 전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메인화면을 살펴보면 경기장 사진으로 메인화면을 구성하고 사진 아래 the brickhouse, the gridiron, the pageantry, the life inside, your story를 대표적인 주제로 배치해두었다. 방문객은 자신이 원하는 주제로 바로 들어가 살펴 볼 수 있으며 도서관 자료 외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제에 관해서도 접속하여 살펴 볼 수 있다.

‘the brick house’는 5가지 주제로(inspiration/construction/the stadium/move/the end) 구성되어 경기장의 조성 계획과 건설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전시해 두고 있다. 당시 경기장 모금 운동 리플릿, 기부자에게 보내는 편지, 경기장 준비 위원회 등 각종 서류 및 건설 현장 사진, 조감도 등을 경기장 건설 시작단계부터 완성 단계까지 시간 흐름에 따라 확인 할 수 있다. ‘The gridiron(미식축구경기장)’은 6가지 섹션(games/players/coaches/trophies/programs/films)으로 구성, 미식축구 경기장의 역사적 게임과 선수, 코치, 트로피, 경기 팸플릿(program), 동영상 등을 전시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주목할 점으로는 주요 방문객인 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스포츠인 미식축구 경기장이 대학 직원들과 학생들 및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해서 ‘the life inside’를 통해 만들어 전시 한 것을 들 수 있다. 방문객은 이를 통해서 경기장이 미식축구 외에도 학위수여 공간, 연구실험장, 육상경기, 지역 축제, 공연장 등 지역의 역사 속의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전시 콘텐츠는 경기장이라는 건축물이 지역사회 집단의 기억 형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your story(당신의 이야기)’에서는 개인단위로 알고 있는 이야기, 오디오와 비디오 부분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자료 공유에 대해서 간단한 안내와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자료 공유를 위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며 어떻게 게시되는지와 저작권 문제에 대해 쉽고 간략하게 설명함으로써 자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사이트에 방문한 사람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나 경험한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사이트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참여 유도 기능을 전시 부분 옆에 동등한 위치에 노출시켜 참여와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있다.

전시와 관련된 자료 대부분은 미네소타 도서관 내 위치한 대학 기록관과 도서관 자료를 활용하였다. 대학 내 경기장이 갖는 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장이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전시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운동경기장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건축물로서 어떻게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는지를 드러냄으로서 방문객들에게 건축물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대학 내 존재하고 있는 거대한 기념물이(monument)가 아니라 OMEKA를 이용한 웹 전시를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해당 건축물이 갖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방문객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적극적인 의도를 보여주는 구성으로 방문객은 사이트를 통해 경기장의 역사를 간접 경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를 통해서 공간에 담겨져 있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보존할 수 있다.

4. OMEKA를 이용한 기록 웹 전시 절차와 방법

본 장에서는 OMEKA를 통해 기록 웹 전시를 구현하는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여타 다른 시스템을 전혀 의존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고 있는 PC환경에서 OMEKA.net을 활용하여 기록전시

를 구현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기록관리에 필요한 예산, 인력 등 기록관리 운영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 민간아카이브의 웹 기록전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OMEKA.net의 무료 등급(500MB, 1 site, 10 plugins, 4 themes)의 범위 안에서 기록전시 운영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비예산으로 전시사업의 가능성도 가늠하고, 위 환경에서 기록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전 계획과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등을 점검한다.

1) 사전 검토

OMEKA를 활용한 기록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속성과 대상 기록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OMEKA에서의 기록관리는 곧바로 전시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관리의 전문성과 ‘전시의 대중성은 자칫 충돌할 수 있는 개념임에도 위 시스템에서 쉽게 융합할 수 있는 것은 앞서 살펴본 관리자 편의성도 한 몫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계층구조의 단순함이다. 물론 이 단순 구조가 복잡한 계층구조를 요구하는 기록군을 적절하게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아이템-컬렉션의 2단계 구조는 기록에 접근하는 데 피로감이 적어서, 기록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일반 관람자가 별다른 부담 없이 쉽게 기록전시를 접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본 시스템을 통해 기록관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시각적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전시효과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강점이다. 즉 관람객의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강하지만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시각적 이미지가 활용된다는 점이다.²¹⁾ 더불어 운영체

21) 박물관 등 전시기능에 충실한 전문기관에서 실제 전시를 개발하고 제작할 때 1차적 고려사항은 시각적인 이미지 활용이다. 케리 에드슨 저, 이보아 역, 『21세기 박물관 경영』, 시공사, 2001

제가 일반 PC 환경에서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으며 인터페이스 역시 매우 간편하여 전시를 기획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시스템의 이점과 특징은 앞에서 서술한 바 있다.

OMEKA의 기술계층은 간결하기 때문에 기록 관리 및 전시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기관내 이관형 기록관리 보다는 수집형 기록관리가 적절하며, 전시 역시도 계층구조가 복잡하지 않은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본 전시사례에서 활용되는 기록은 서울시에서 온라인상에서 공개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록들이다.²²⁾ 기록 형태를 보면 대다수 사진, 문서, 도면 등이며 전산화되어 온라인 활용이 가능한 매체이다. 특히 대부분 사진이미지를 차지하고 있어 시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쉽게 접하기 힘든 1960~70년대 종이문서들이 있어 전시 활용 시 지적 호기심도 자극할 수 있다.

전시에 활용하고자 하는 기록 91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1960년대 중반 서울시정과 도시 변화와 관련한 시정 기록 55건, 1960~70년대 고도성장기 서울시 도시재개발과 철거민 이주 관련 기록 7건, 1968년 운행이 중단될 때까지 서울시의 주요 대중교통수단이었던 전차 관련 기록 6건, 4.19혁명 이후 최초의 민선 서울시장 관련 기록 9건, 1960~2012년 간 서울시청 앞 주요사건 등 서울광장 관련 기록 14건 등이다.

OMEKA가 전시연출에 강점이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기본적으로 기록을 관리하는 도구가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을 수집하여 분류·정리한 후 집적된 보유 기록들 중 일부를 선별하여 특정 주제 전시에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OMEKA의 전시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기록관리 단계에서부터 주제형으로 분류·정리를 추진했음을 일러둔다.²³⁾

22)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과장 ‘메이드인서울’ <http://opengov.seoul.go.kr/seoul> (2014년 9월 30일 현재)

23) 후술하겠지만, OMEKA의 서비스 구조는 전시파트(Exhibit) 뿐만 아니라 ‘아이템-컬렉션’의 분류체계 구조도 검색을 위해 동시에 제공한다. OMEKA의 서비스 중

2) 웹 전시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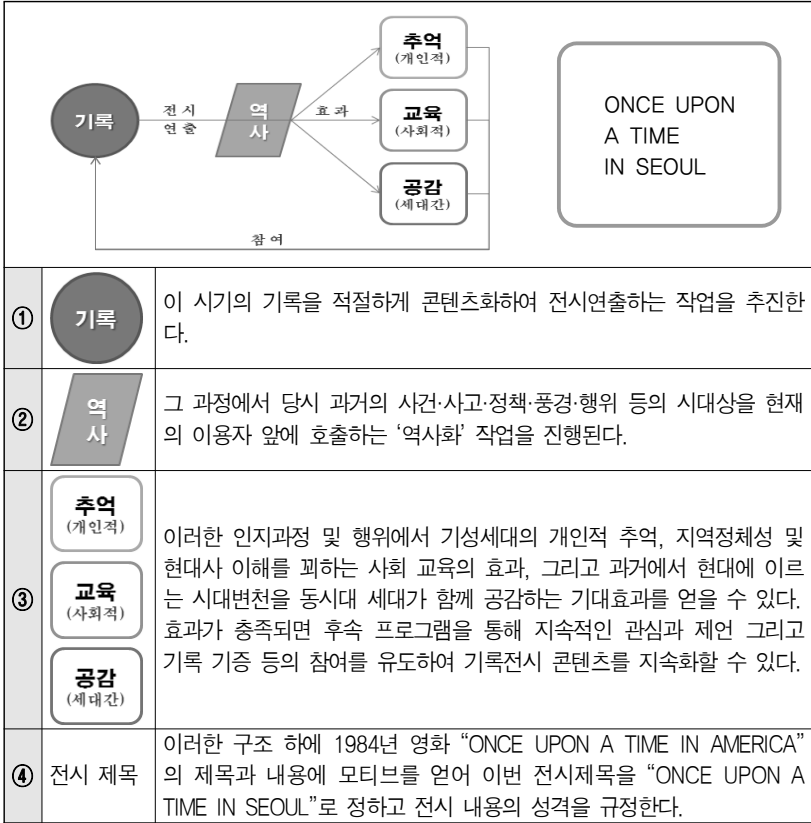
효과적인 전시를 위해서는 전시주제를 명확히 하고 이를 콘텐츠화 시킬 수 있는 개념 도출이 필요하다. 전시주제 및 대상기록에 대한 제반 지식과 스토리 구성 역시 구비되어야 한다. 또한 컬렉션 구성의 단계 및 정리·기술의 단계(주제형)의 정의를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전시 활용대상 기록들은 시기적으로 1960~80년대가 집중되어 있다. 이 시기 서울은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팽창이 폭주하여 심각한 주택난과 교통난이 가중되었고, 행정영역에는 과밀화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개발이 추진되었다. 공군 활주로로 사용되었던 여의도가 개발되었고, 지금은 '강남'이라고 부르고 있는 한강 이남지역이 대규모 신시가지 개발지역으로 부상하였다. 그 과정에서 빈민 주거지를 대규모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철거·이전되었고, 무분별한 난개발로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들 기록들을 토대로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서울 현대사 기록 정보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1960~70년대 시기의 시정기록은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종 분야들이 급격한 변동이 있었던 시기를 반영하며, 오늘의 사회문제를 이야기할 때 항상 호출되고 담론화될 수 있는 주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과 계층에서 호응할 수 있는 전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전시대상 기록의 성격을 수렴하여 이번 기록 전시에 다음과 같은 개념을 상징하고 도식화하면 다음 표와 같다.

분류체계 구조의 노출은 단순할 뿐 아니라 레이아웃도 디자인적 요소가 있고 직관적여서 그 자체가 전시적 효과가 있다.

〈표 5〉 기록 전시 개념 구조도



한편 전시는 기획, 조사, 디자인, 전시, 평가, 홍보, 경영관리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복합적인 작업이다. 소규모 전시의 경우 개인 1인이 전부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전시는 다수의 전문인력들이 직간접적인 형태로 참여한다. 어떠한 상황이던 전시는 다루는 주제나 대상 그리고 전시물의 수량이나 종류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대한 목표설정을 명확히 하고 이를 기록화해야 한다. 이 때 문서화는 추진계획

단계에서 명확해지는데, 아래는 “ONCE UPON A TIME IN SEOUL” OMEKA 웹 전시 추진계획서 작성예시이다.

〈표 6〉 전시 추진 계획서(예시)

<p>“ONCE UPON A TIME IN SEOUL” OMEKA 웹 전시 추진계획(안)</p>
<p><input type="checkbox"/> 전시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팽창을 경험한 서울의 변천을 기록을 통해 조명 - 이를 증거하는 기록의 역할과 문화교육적 중요성을 공유
<p><input type="checkbox"/> 전시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기록 전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과거 시정 변천을 재현 - 웹 전시를 통해 사·공간의 제약 없이 다량의 기록을 효율적으로 연출 - 연출 기획방향 변경 및 오류수정에 대해 탄력적 대응 - 기록 추가 수집에 따른 전시 내용 집적 및 이용자와의 공유 지속
<p><input type="checkbox"/> 전시추진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제목 : (가제) ONCE UPON A TIME IN SEOUL ○ 추진기간 : 연중 ○ 전시소재 : 서울시 역대 시정 기록 91건 ○ 구현형식 : 웹 전시 (OMEK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MEKA를 활용하여 별도의 가공 없이 대중적인 기록 웹 전시 구현 - 웹 전시 사이트 URL : http://lucida.OMEKA.net ○ 관람대상 : PC를 통해 웹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한 일반 시민들 ○ 전시방법 : 91개의 Item, 5개의 Collection, 3개의 Exhibit로 구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류구분 및 전시컬렉션 모두 전시서비스로 활용 ○ 전시내용 : 1960년대 이후 서울 시정 사진 등 기록 전시 ○ 소요비용 : 비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MEKA.net의 무료 등급(500MB, 1 site, 10 plugins, 4 themes) 활용

3) 전시 기록 분류 및 구성

이번 시범운영은 위 전시콘텐츠 개념구조에 따라 91개의 기록을 가용하여 91개의 Item, 5개의 Collection로 구조화하였다. 그리고 그 가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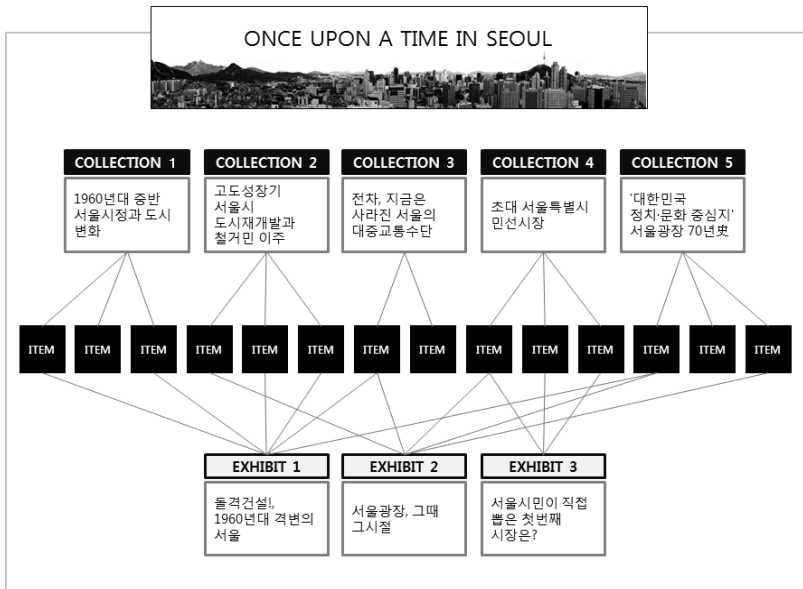
데 3가지의 소주제로 선정하여 별도의 Exhibit로 구성하였다. 현황 및 구조는 다음 표와 같다.

〈표 7〉 “ONCE UPON A TIME IN SEOUL” 전시 기록물 현황

전시 기록 분류	
Collection (5)	Item (91)
1. 1960년대 중반 서울시정과 도시 변화	<p>김현옥 전 서울시장 시정기록물 55건</p> 
2. 고도성장기 서울시 도시재개발과 철거민 이주	<p>60~70년대 철거 및 이주 관련 기록 7건</p> 
3. 전차, 지금은 사라진 서울의 대중교통수단	<p>전차 운행 사진기록 및 궤도 도면 등 6건</p> 
4. 초대 서울특별시 민선시장	<p>제11대 김상돈 시장 선거개표록 및 사진기록물 9건</p> 
5. '대한민국 정치·문화 중심지' 서울광장 70년史	<p>'60~'12년 간 서울시청 앞 주요사건 기록 14건</p> 

Exhibit (3)			
1. 돌격건설! 1960년대 격변의 서울			
2. 서울광장, 그 때 그 시절			
3. 서울시민이 직접 뽑은 첫 번째 시장은?			

〈표 8〉 “ONCE UPON A TIME IN SEOUL” COLLECTION · ITEM · EXHIBT 구조 예시



위 현황 및 구조예시에서 보듯이 Collection 하부구조에는 그 성격에 부속하는 Item 단위의 기록물들이 있으며, 특정 주제의 기획전시 영역인 Exhibit는 시스템 내부에 등록된 Item을 의도에 맞게 재배치할 수 있는 영역이다. 참고로 이번 Collection은 시정기록의 변천이라는 주제에 맞추어 수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Exhibit의 성격이 강하다. 한편 OMEKA “ONCE UPON A TIME IN SEOUL” 전시의 주요 기록군인 Collection의 기술(記述, description)은 아래와 같다. 요지를 참고로 Exhibit과 Item 영역에서도 기술 작성은 가능하다. 이 작업은 해당 기록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으로 기록을 통제하기도 용이하고 전시콘텐츠로 활용할 경우에는 관람하는 이용자에게 전시내용을 설명하는 패널 역할을 한다. 특히 OMEKA의 경우 Item 단위와 Collection 단위가 모두 서비스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술의 경우, 전시 서비스를 고려한 대중적인 전시소개 글쓰기를 고려하였다.

〈표 9〉 “ONCE UPON A TIME IN SEOUL” COLLECTION 기술 현황

제목	기술 내용
① 1960년대 중반 서울시정과 도시 변화	1966년부터 만 4년 재임한 ‘불도저 시장’ 김현옥은 ‘돌격 건설’의 기치 아래 서울의 모습을 탈바꿈시켰다. 강변로, 청계고가 등 수많은 도로, 지하도와 육교를 건설했고 세운상가를 만들었다. 또한 땅콩밭 여의도를 개발하고 곳곳에 시민아파트를 지었다. 그 과정에서 빈민 주거지를 대규모 철거, 이전하기도 했다. 1970년 아우아파트의 붕괴로 그는 물러났지만, 이때 시작된 ‘개발열풍’은 198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② 고도성장기 서울시 도시재개발과 철거민 이주	인구유입으로 서울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1960~80년대, 서울의 하천변, 구릉지에는 불법 무허가주택이 많이 들어섰다. 서울시는 이들 ‘불량주거지’ 주민들을 번두리지역에 집단 이주시키고 불량주거지는 재개발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결과는 주거부족과 빈곤문제의 장소 이동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철거문운동이 도시빈민 운동으로 자리하게 된다.
③ 전차, 지금은 사라진 서울의 대중교통수단	1960년대 이전까지 전차는 시민들의 주된 교통수단이었다. 그러나 번두리 지역이 계속 개발되면서 궤도가 없는 길을 자유롭게 달리는 버스에 밀려 경쟁력을 잃고 결국 전면 중단하기에 이른다. 이후 버스가 시민의 발이 되었다가, 1974년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면서 점차 지하철 대중교통시대가 열리게 된다.

④ 초대 서울특별시 민선시장	서울시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초대 시장은 제11대 김상돈 시장이다. 카이저수염이 인상적인 김상돈 시장은 대한민국 제헌의회 초대의원이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대한민국 최초로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된 그는 이듬해 1월 5일 취임식에서 '시 예산의 낭비 방지', '공무원의 예산 횡령 방지', '신속한 사무처리 처결'을 시정 목표로 내세우는 등 혼란했던 서울시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으로 그 뜻을 펴지도 못한 채 불과 5개월 만에 시장직에서 물러나고 말았다.
⑤ 대한민국 정치·문화 중심지 서울광장 70년사	서울시청 앞에서 조성된 서울광장은 광복 전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정치·문화 중심지였다. 여기에서는 70여 년 동안 서울광장 인근에서 전개된 역사사진을 통해서 한국현대사의 변천을 엿본다.

OMEKA의 기본 세트 구성은 Dashboard) Manage Site) Settings에서 수행한다. Edit General Settings에서는 관리자 이메일, 사이트 제목, 사이트의 기술을 입력하고, Browse Plugins에서는 본 사이트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시스템 기능들을 설치 관리한다. Browse Themes에서는 사이트의 배경을 설정하는데, 무료 버전에서는 4가지 테마를 제공한다. Browse Users는 사이트 이용자를 관리한다.

4) 기록 등록관리

OMEKA에서 기록 등록 및 수정 등 관리는 상술한 바와 같이 Dashboard 내 Manage Site에서 수행한다. 아이템 관리는 'Browse Items' 항목에서 실시하는 각 건별 기록별로 편집 및 삭제를 할 수 있다. Edit Item에서 기록물건은 Dublin Core 메타데이터로 관리한다. 아울러 기록 유형, 컬렉션, 기록(파일) 업로드, 태그 등을 통제한다. 여기에서는 2012년 10월 서울광장에서 열렸던 가수 싸이 콘서트 현장 사진기록물을 소재로 정리하였다.

〈그림 7〉 Edit Item > Dublin Core 색인 입력 화면

Edit Item #1: "서울광장 싸이 공연" Delete this Item
 Public: Featured:

Dublin Core
 Item Type Metadata
 Collection
 Files
 Tags

Dublin Core
 The Dublin Core metadata element set. These elements are common to all Omeka resources, including items, files, collections, exhibits, and entities. See <http://dublincore.org/documents/dces/>.

Title
 서울광장 싸이 공연
 Use HTML
 Add Input
 A name given to the resource. Typically, a Title will be a name by which the resource is formally known.

Subject
 서울광장 싸이 공연
 Use HTML
 Add Input
 The topic of the resource. Typically, the subject will be represented using keywords, key phrases, or classification codes. Recommended best practice is to use a controlled vocabulary. To describe the spatial or temporal topic of the resource, use the Coverage element.

Description
 2012년 10월 서울광장에서 군중이 모인 싸이 공연 현장이다. 한국기록원과 영국 기네스월드 레코드(세계 기네스북)는 2012년 10월 가수 싸이와 서울 시민 10만명이 함께 광남스튜디오 부근의 한 단체 모습을 새로운 세계 기록 단이 틀로 인정했다.

한편 Edit Item > Item Type Metadata에서는 문서, 동영상, 구술사, 웹 사이트 등 사전에 Item Type에서 매체별 유형화한 값을 선택한다. Edit Item > Collection에서는 Collection 단계에서 유형화한 목록을 선택하여 해당 Item을 분류한다. 기록을 수집하는 단계에서 사전에 Collection-Item 계층구조를 확정하고 Collection 단계에서 색인작업을 진행하면 Item 정리가 수월하다. Edit Item > Files에서는 해당 기록물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삭제, 편집하는 단계이다. 한편 Tag 작업을 통해 등록된 기록을 특정 주제별로 키워드를 통제하여 검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아래 두 화면은 Edit Item 단계에서 작업을 마친 후 Browse Items에서 표출된 목록이다.

〈그림 8〉 Browse Items 내 기록물 입력결과 화면(Show Details)

Quick Filter All Public Private Featured Search

Toggle Show Details Advanced Search

Edit Selected Items

First Previous 6 7 8 9 10

<input type="checkbox"/>	Title	Creator	Type	Public	Featured	Date Added
<input type="checkbox"/>	서울광장 싸이 공연 Details Edit Delete  2012년 10월 서울광장에서 군중이 모인 싸이 공연 현장이다. 한국기록원과 영국 기네스월드레코드(세계 기네스북)는 2012년 10월 가수 싸이와 서울 시민 10만명이 함께 강남스타일을 부르며 춘 단체 알송을 새로운 세계 기록 타이틀로 인정했다. Collection: '대한민국 정치·문화 중심지' 서울광장 70년호 Tags: No Tags	서울특별시	사진 이미지			Apr 13, 2014

Edit Selected Items

First Previous 6 7 8 9 10

〈그림 9〉 Browse Items 내 기록물 입력결과 단순목록 화면

Quick Filter All · Public · Private · Featured Search

Toggle Show Details Advanced Search

Edit Selected Items

1 2 3 4 5 Next Last

<input checked="" type="checkbox"/>	Title	Creator	Type	Public	Featured	Date Added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3년 5월 서울광장 전경 Details Edit Delete	서울특별시	사진 이미지			May 25, 2014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경앞 88서울올림픽 성화 안치 Details Edit Delete	서울특별시	사진 이미지			May 25, 2014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울광장 전야합 순직유사 합동분향소 Details Edit Delete	서울특별시	사진 이미지			May 25, 2014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울광장 분향소 전경(故 김대중 전대통령 조문) Details Edit Delete	서울특별시	사진 이미지			May 25, 2014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Details Edit Delete	서울특별시	사진 이미지			May 25, 2014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낙월상가 공사현장 Details Edit Delete	서울특별시	사진 이미지			May 25, 2014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천연동 APT 공사(천연동) Details Edit Delete	서울특별시	사진 이미지			May 25, 2014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왕능선(경운아파트) 전경 Details Edit Delete	서울특별시	사진 이미지			May 25, 2014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요방문 감상촌 Details Edit Delete	동아방송 DBS	Sound			May 25, 2014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주주의 수호에 청년학도 총결기 Details Edit Delete	대한뉴스	Moving Image			May 25, 2014

Edit Selected Items

1 2 3 4 5 Next L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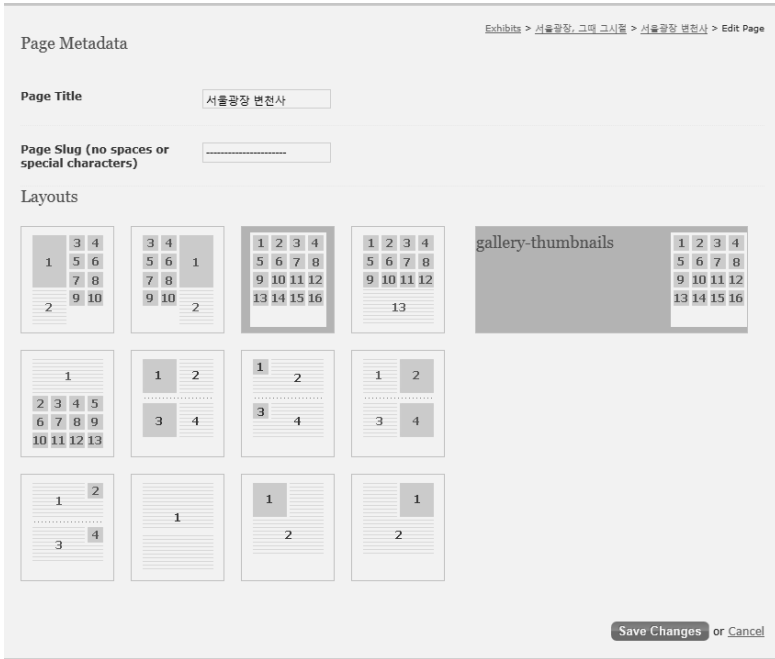
한편 OMEKA는 Collection-Item의 계층구조와 별도로 Item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Exhibit 파트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독자적인 기록전시 연출을 표현할 수 있다. 이번 “Once Upon A Time In Seoul”에서는 시범적으로 3개의 주제(Title)를 마련하였다. 주제의 증감은 Add와 Delete 아이콘을 통해 제어한다.

〈그림 10〉 Browse Exhibits 화면

Title	Tags	Theme	Public	Featured	Edit?	Delete?
서울시만이 직접 뽑은 첫번째 시장은?		Current Public Theme				
서울광장, 그때 크시잖		Current Public Theme		★		
올건설!, 1960년대 격변의 서울		Berlin				

주제를 편집하거나 추가하게 되면 우선 해당 주제의 Edit Exhibit에서 Exhibit Metadata와 Exhibit Sections and Pages를 작성할 수 있다. Exhibit Sections and Pages에서는 Exhibit 하위 레벨인 Section 및 Page를 추가·편집·삭제를 할 수 있다. Edit Page는 Page의 레이아웃과 콘텐츠를 구성하는 Item을 편집하는 공간이다. 특히 Page Metadata 편집창에서는 아래 화면과 같이 연출될 기록물의 이미지들을 효과적으로 배열할 수 있는 몇 가지의 Layout을 제공한다. 해당 Page의 기획의도나 내용, 주제에 따라 선택한다. 여기에서는 서울광장(서울시청 앞 광장)의 수십년간의 변천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자 큐브 형식으로 제공하는 형태를 선택했다.

〈그림 11〉 Edit Page > Page Metadata 화면



이상 OMEKA Dashboard > Manage Site에서 기록물을 관리·전시 연출하는 과정을 알아보았다. 다음은 외부 영역인 View Site에서 어떻게 서울의 과거 기록물들이 서비스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5) 전시 연출 관리

OMEKA로 작업한 “ONCE UPON A TIME IN SEOUL”은 OMEKA.net에서 제공하는 기본테마 중 저사양 pc에서도 원활히 서비스할 수 있도록 가벼운 테마를 선별하였다. 앞서 본 전시는 언급하였지만 서울시 및 기타 기관에서 생산한 사진, 동영상, 음성 등 다양한 매체의 기록물을 통해

서 광복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팽창을 경험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메인 페이지 구성은 Item, Collection, Exhibit 세 가지 영역으로 서비스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Browse Items에서는 View Site에서 제공하는 모든 Item 단계의 기록물들의 제목, 기술, 이미지의 목록을 제공한다. 목록을 구성하는 제목이나 이미지 등을 클릭하면 해당 기록물의 세부내용이 Dublin Core에 따라 제공한다.


〈그림 12〉 Browse Collections)Collection 세부 검색 화면



Browse Collections 영역에서는 5개의 Collection이 제목과 간략한 기술 설명을 목록화할 수 있다. Collection 목록을 클릭하면 해당 Collection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화면으로 전환된다. 다음 그림은 1960년대까지 서울의 주요 대중교통수단이었던 전차에 대한 Collection을 이루는 사진, 도면 등의 기록물들이 소개되는 장면이다.

Browse Exhibits은 초기 메인화면에서도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는 서울시 최초 민선시장, 서울광장 변천, 1960년대 서울 도시개발 등 3가지의 주제를 보여준다. 목록을 클릭하면 해당 전시주제에 대한 설명과 세부 Section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 Browse Exhibits 화면

Browse Items	Browse Collections	Browse Exhibits
		
<h2>BROWSE EXHIBITS (3 TOTAL)</h2> <p>Browse All Browse by Tag</p>		
<p>서울시민이 직접 뽑은 첫번째 시장은?</p> <p>서울시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초대 시장은 제11대 김상돈 시장이다. 카이저수염이 인상적인 김상돈 시장은 대한민국 재헌의회 초대의원이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대한민국 최초로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된 그는 이듬해 1월 5일 취임식에서 '시 예산의 낭비 방지', '공무원의 예산 횡령 방지', '신속한 사무처리 저절'을 시장 목표로 내세우는 등 혼란했던 서울시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으로 그 뜻을 꺾지도 못한 채 불과 5개월 만에 시장직에서 물러나고 말았다.</p>		
<p>서울광장, 그때 그시절</p> <p>서울시장 앞에서 조성된 서울광장은 광복 전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정치·문화 중심지이었다. 여기에서는 70여 년동안 서울광장 인근에서 전개된 역대사건을 통해서 한국현대사의 변천을 엿볼 수 있다.</p>		
<p>돌격건설!, 1960년대 격변의 서울</p> <p>1966년부터 만 4년 재임한 '불도저 시장' 김원옥은 '돌격 건설'의 기치 아래 서울의 모습을 탈바꿈시켰다. 강변로, 청계고가 등 수많은 도로, 지하도와 육교를 건설했고 세운상가를 만들었다. 또한 당풍발 여의도를 개발하고 곳곳에 시민아파트를 지었다. 그 과정에서 빈민 주거지를 대규모 철거, 이전하기도 했다. 1970년 아우아파트의 붕괴로 그는 물러났지만, 이때 시작된 '개발열풍'은 1980년대까지 지속된다.</p>		


〈그림 14〉 Browse Exhibits) Exhibit) Section 세부 검색 화면



위 그림은 Exhibit) Section 이하 Page의 검색화면이다. 화면에서 제공하는 있는 기록물들은 광화문 지하도, 청계천 일대 판자촌 철거, 육교 건설, 3.1고가도로 건설 사진 기록물로서 1960년대 서울의 급격한 공간 변화 과정을 담고 있다.

기록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기록물 이미지를 클릭하여 해당 기록물의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화면은 1966년 8월 9일 청계천 주변 계획도로 지역내 건물철거 집행 계획을 보고한 공문서 스캔자료(pdf파일)이다.

〈그림 15〉 Browse Exhibits > Exhibit > Section > 기록물 세부 검색 화면

Browse Items	Browse Collections	Browse Exhibits
<p>청계천 주변 계획도로 지역내 건물철거</p> <p>Dublin Core</p> <p>Title 청계천 주변 계획도로 지역내 건물철거</p> <p>Subject 청계천 주변 계획도로 지역내 건물철거</p> <p>Description 1966년 8월 9일 청계천 주변 계획도로 지역내 건물철거 집행 계획보고</p> <p>Creator 서울특별시</p> <p>Source 서울특별시</p> <p>Date 1966-08-09</p> <p>(1966-08-09)청계천 주변 계획도로 지역내 건물철거.pdf</p>  <p>Collection 1960년대 중반 서울시정과 도시 변화</p> <p>Citation 서울특별시, "청계천 주변 계획도로 지역내 건물철거," <i>Once Upon A Time In Seoul</i>, accessed June 25, 2014, http://lucida.omeka.net/items/show/425.</p>		

아래 화면은 OMEKA를 통한 기록 웹 전시가 어떠한 형태로 서비스되는지를 구조화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화면에서 보듯이 OMEKA View Site의 구성은 Gallery 형태의 시각적 전달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계층구조의 단순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계층구조는 복잡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다량의 기록물들을 효과적 대응하기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에는 기록전시 관람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용자 관

5. 맺음말

OMEKA는 디지털 컬렉션과 웹 전시 등 콘텐츠 관리를 위한 공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OMEKA의 장점은 설치가 용이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술 발달 추세에 맞게 빠르게 적용 가능한 기술적 유연성과 확장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 중에서도 큰 장점은 웹 전시 도구로서의 기능이다. OMEKA에서 자체적으로 다양한 디자인과 레이아웃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할 수 없는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OMEKA를 이용하여 지역 커뮤니티나 소규모 도서관, 아카이브 등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더욱이 OMEKA는 이러한 사용자 친화적인 장점을 바탕으로 소장 자료 전시를 넘어서 외부 이용자의 전시 참여가 가능하다. 개인과 사회적 기억에 누구나 손쉽게 접근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자료의 게시와 등록을 손쉽게 만들었으며, 여러 집단이 전시에 협업할 수 있어 다양한 직종의 전문기관들이 공동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허리케인 디지털 기억 은행 전시 사이트는 하나의 기록이 집단의 기억보존에 기여하고 역사로 탄생되어 후대에 전승될 수 있는 과정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국내 기록관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이 제·개정하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행정영역 중심으로 성장하였다.²⁴⁾ 공

2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기록물관리의 목적(제1조)을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령의 대부분이 공공기관 내부의 기록관리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 우리나라 기록관리는 민간이나 문화적 영역보다는 행정적 영역에 치중되어 있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정치적 환경에서 기록관리가 출발했고 성장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 : 김정하, 「우리나라 기록물관리법의 기록관리학적 배경과 문제점」, 『정신문화연구』 23, 한국학중앙연구원, 2000, 205-238쪽.)

공기관 조직 내부의 기록관리가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지만, 국내외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정보공유의 시대적 흐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과제도 생겨나고 있다.²⁵⁾ 즉 국내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는 이제 기존부터 추구해왔던 ‘관리 운영 및 보존’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함은 물론 이용자 중심의 ‘적극적인 활용과 공유’ 및 이에 부합하는 문화적 역할도 충족해야 하는 시점에 온 것이다.

한편 지역공동체 및 각종 커뮤니티의 활동이 증가하고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유대감과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크고 작은 노력이 가시화되는 한편 지역사회와 가족사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문화적 수요층이 확대되면서²⁶⁾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역시 요구되고 있다.

이렇듯 국내 각 기관 및 지역·단체·운동 등 커뮤니티의 문화에 대한 역사성·상징성·정체성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 기록 활용이 적절하게 구현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측에 시선을 돌리자면 기록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를 활용하여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미흡한 것에도 원인이 있다. 아울러 기록을 관리하고 활용한다는 것에는 적지 않은 예산과 시간 그리고 인력이 요구된다는 물리적 제약요건도 있다. 그런 면에서 기록관리는 물론 효과적인 웹 전시를 구현할 수 있는 OMEKA는 국내 기록문화 확산에 일정정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각 지역은 급격한 산업화와 정치적 격동기를 거치면서 공간의 변화와 전통 지역문화의 상실과 변용을 겪어왔다.

25) 김유승, 전진한, 「거버먼트 2.0 기반의 공공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 한국기록관리학회, 2011, 47-66쪽.

26) 윤은하,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기록학연구』 33, 한국기록학회, 2012, 3-37쪽.

최근에도 이러한 변화들이 기록으로 포착될 틈도 없이 가속화되고 있어 기록화 및 그에 대한 성과 공유가 절실하다. 예컨대 서울이나 의정부의 경우에도 재개발 및 미군기지 이전 등 해당지역이 대규모로 변화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지역문화들과 지역주민들의 기억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때 관할 지자체의 기록관리·문화기관들은 주민의 개인적인 추억이나 기억 등이 담긴 구술,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지역과 삶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기록들을 수집하고, 관할 기관의 정책결정 및 시행관련 기록, 행사 사진 및 비디오, 그리고 언론보도 기사 등의 기록과 융합하여 해당 주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전시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주민들이 지역의 급격한 변화 또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역사와 전통을 좀 더 이해하고 관할 공공기관 역시 지역주민과의 유대 속에 자치행정의 협치(민관협치)를 도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특정 기관이나 조직의 특성을 기록전시를 통해 홍보하고 교육할 수도 있다. 한국은행 등 역사성을 가진 금융기관의 경우 고유업무인 화폐와 금융에 관한 콘텐츠를 기록을 통해 연출할 수 있다. 또한 통화개혁이나 IMF, 5만원권 발행 등 국내 경제의 주요사건을 기관 보유 기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주체인 국민들을 상대로 관련 기록을 수집하여 전시한다면 해당기관의 상징성과 경제정책이라는 어렵고 거시적인 내용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쉽게 설명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OMEKA는 단순한 계층구조 때문에 심도있고 복합적인 기록관리를 구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오히려 단조로운 계층질서는 기록 관리 및 전시에 관심은 많으나 체계적인 기록관리 훈련을 받지 않은 그룹이나 단체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비전문가가 기록관리 영역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관련 기록을 쉽게 관리하고 이를 바로 전시 등에 활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기록에 애정을 쏟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반대로 기존 기록관리를 수행하던 공공기관도 OMEKA를 유

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오늘날 국내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운영방식은 기관내부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이관하여 보존하는 프로세스로서, 이들 기록들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에서 보급하는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이관 시스템 환경에서는 특정 주제를 목적으로 관련 기록들을 컬렉션으로 묶거나, 또는 민간영역의 기록물을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해당 기록을 전시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 즉 일선 공공기관 기록관리가 오늘날 대두하고 있는 기록정보의 활용과 공유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과 별도의 시스템적 구조가 필요한데, 이러한 차원에서 OMEKA의 활용이 일정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존 이관기록 관리체제와 분리하여 OMEKA를 별도 수집형 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해볼 수 있다. OMEKA의 손쉬운 기능과 기록관리의 단순한 구조를 활용하여 민간기록을 수집하거나 기관 내 특정 사건이나 내용을 주제화하고 이를 선별하여 웹 전시의 형태로 퍼블리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프라인 전시를 유지하거나 종료할 때 OMEKA를 활용하여 백업한다거나 간단한 웹 콘텐츠를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OMEKA를 활용한 사이트 구축은 기관과 이용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관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콘텐츠를 기술 제약 없이 전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기관의 콘텐츠를 풍부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그 콘텐츠를 통해서 기관의 존재를 알리는 것에 적극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 Study on the Exhibition through the Web with Open Source Software OMEKA

Choi, Yun-Jin · Choi, Dong-Woon
Kim, Hyung-Hee · Yim, Jin-Hee

Korea has a high standard of IT environment to serve exhibit programs through the web with internet propagation and IT technology. However, the web exhibition of public institutions not only seem to introduce off-line exhibitions but also not to invigorate. It is caused by the lack of awareness, the cost of system installation and the lack of professional manpower. In this situation, OMEKA could suggest practical solutions to archives where need their own exhibition through the web. Especially, it would helpful for small record management organizations which are not enough budget and personal.

OMEKA is an open source software program for digital collection and contents management. It has an affinity with users unlike traditional archives service programs. It also has been variously used by libraries, museums and schools because of exceptional exhibit functions.

In this article, we introduce to the installation of a practical use about OMEKA. Regarding to OMEKA features, we consider it to raise exhibit effects.

OMEKA would reduce the cost related to plans of exhibitions because it could display various contents and programs which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s. In addition, the availability of installation and widespread technological environment would lessen burden of public institutions. Using OMEKA, they would improve service level of public institutions and, make users satisfy. Therefore, they can change the social recognition of public institutions.

OMEKA can contribute to various exercises of public records. It is not just the stereotypical system but, serves exhibition and collections with the strategy which each public institution would like to display. After all, it not only to connect to users with producers but also to improve the public image of institutions positively. Then, OMEKA would bring the great result through this interaction between public institutions and users.

Key words : open source software, OMEKA, the web exhibition, the online exhibition

